

<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◎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항상 <금주의 말씀>을 중심해서 들어야 됩니다.

첫째, 시간적으로 늦기 전에 행하여라.

둘째, 육신이 늙기 전에 행하여라.

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듣기 바랍니다.

1. 사람들은 빠르게 했다고 해도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늦다. 고로 더 뛰어야 된다.
2. 사람들은 항상 늙는다. 매일, 매시간, 매분마다 늙고 있다. 그러므로 매일 부지런히 할 일을 해야 된다. <빨리 하는 것> 밖에 없다.
3. <사람>은 성장기가 끝나고부터는 늙어간다. 매일 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늙어간다. <꽃이 폈다 지는 과정>을 보면, 매일 ‘꽃이 지는 표’가 난다. 물기가 마르고 쭈글쭈글해진다. <뜨거운 물>도 보면, 물을 끓이다가 내려놓았을 때부터 ‘식는 기간’이다. 온도계로 재보면 표가 나게 온도가 내려간다. <해가 질 때>도 2시가 넘어가면 바로 표가 난다. <차로 목적지를 갈 때>도 ‘남은 거리’가 표가 나게 줄어든다. 이같이 사람도 누구든지 ‘인생 늙는 것’이 확실하게 표가 난다. 고로 늙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.

4. <차>도 관리를 잘하면 ‘30년 된 차’ 라도 잘 가듯이 <신앙>도 관리를 잘하면 ‘젊은 신앙’ 을 하는 것이다.
5. 인생을 보다 빨리 뛰며 사는 것이 ‘젊음을 유지하는 것’ 이다. 이는 마치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이 멈춘 것과 같다. - 이 말은 태양이 실제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, ‘빨리 행한 시간의 표적’ 을 말하는 것이다. 시간을 안 가게 하는 방법은 ‘빨리 뛰는 것’ 이다.
6. <젊었을 때의 1년>은 ‘나이 먹었을 때의 10년’ 과 안 바꾼다. 선생도 보면, 선생이 15세 때부터 하나님은 밀어붙이셨다. 그때부터 늦기 전에 뛰고 날며 행하다 보니, 어디 가서 편히 쉴 시간도 없었다.
7. 한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, “<일생>을 계산하면 잘 이해가 안 간다. 그러니 <일생>을 ‘하루’로 축소시켜 보자.” 하셨다. 고로 <일생>을 ‘하루’로 두고 살아보니, 새벽 4~5시에 일어나서는 그날의 할 일을 못 하고 해가 졌다. 3시에 일어나도 안 됐다. 피곤하고 힘들지만 1시에 일어나니 그날 일을 다 할 수 있었다. 그리고 날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최대로 아껴 쓰면, 80세까지 할 것을 50세 안에 다 끝낼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왔다. <15세>를 하루를 두고 계산해 보면, 새벽 ‘1시’ 쯤 된다. 인생 일생이 마치 ‘하루 해’ 같다. 20년 동안 배우고, 40년 동안 행하여 총 60년 동안 해서 ‘하나님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낸 지 70년’ 만에 끝냈다. 빨리 했기에 이와 같이 역사를 펴서 끝장을 본 것이다. 끝나고서도 지금도 청청하

게 달리고 있다. <나머지 기간>은 특별히 투자하는 것 없이 ‘흑자의 삶’을 사는 기간이다. 빨리 뛰니, 지금은 <황금별판의 세계>를 달리고 있다. 그곳에는 보물들이 그냥 널려 있다. 그런 세계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.하나님이 행해 주시고, 성자가 직접 육신을 쓰고 행하셔서 이같이 빨리 뛸 것이다. 사정없이 뛰고 달리니 ‘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때’에 맞춘 것이다. 배우는 기간 20년 동안 달리고, 공적 기간 40년을 달려서 총 60년 동안 일을 한 것이다. <6수>는 ‘끝나는 시간’이다. 섭리사도 이같이 뛰어야 된다.

8. 젊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<젊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>가 문제다.

9. 무엇을 할지 네게 매일 말씀을 줘서 가르쳐 주니,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.

10. <그날 일>을 그날 안 하면, 밀리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.

11. <그날 일>을 그날 안 하면, 다음 날이 오더라도 더 어려워져서 못 하게 되고, 더 조건을 세워야 하게 된다.

12. <지혜>란 ‘제때 하는 것’이다.

13. <늡기 전에 하는 자>가 ‘지혜 있는 자’다. <할 수 있을 때 하는 자>다.

14. <미련한 자>는 할 때 못하고, ‘때 지나서 할 수 없을 때’에 하려고 한다.
15. <행하는 자>가 ‘지혜 있는 자’요, ‘지식 있는 자’요, ‘명철한 자’다.
16. 행하면, 문제도 해결된다. 무조건 행하여라.
17. 하나님은 ‘주’와 행하신다. <주>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같이 행하여라. 그때가 ‘때’니라.
18. 행하지 않으면,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. 이는 너희가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바가 아니냐.
19. <금주의 말씀>을 들었으면,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금주에 행하여라. <늦기 전에 행함>이다. <늦기 전에 행함>이다.
20. 기도하면, 성령께서 ‘할 일’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.
21. 모르면, 할 수 있는 대로 ‘의’를 행하여라.